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1	⑤	2	③	3	⑤	4	②	5	④
6	③	7	⑤	8	③	9	⑤	10	③
11	③	12	②	13	④	14	②	15	②
16	③	17	④	18	①	19	⑤	20	③
21	④	22	③	23	②	24	④	25	①
26	③	27	③	28	③	29	①	30	①
31	①	32	⑤	33	③	34	③	35	

[1~3]

출제 의도: 3월 모의고사 직전에 출제한 실전모의고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도움이되는 내용을 독서론에 담고 있었으며 소재가 소재인지라 난이도가 매우 쉬워 3번 문제에서 최근 독서론 한 문제를 어렵게 낸 평가원의 사례를 참조해 조금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였다.

1. 정답: ⑤

핵심 정보 파악은 실전뿐만 아니라 분석 단계에서도 지향해야 할 가치다. 지문은 세부 정보를 파헤치는 분석 과정을 통해 고난도 지문의 핵심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 정보 파악을 실전만의 특징으로 한정된 본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문 첫 단락에서 기출 분석은 평가원의 출제 방식을 체화하는 과정이라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분석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② 두 번째 단락에서 실전의 효율적 독해와 분석 단계의 집요한 세부 정보 파악을 명확히 대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③ 마지막 단락에서 모든 선지의 근거를 직접 찾는 입체적 분석이 반복될 때 독해력이 단단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마지막 단락에서 '스스로 과외하기'를 통해 지문을 설명하는 과정이 독해 밀도를 높이고 문제 대응 태도를 교정함을 설명하고 있다.

2. 정답: ③

선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해야지 그 선지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근거를 찾는 것이니 옳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지문은 분석 단계에서 세부 정보를 집요하게 파헤칠 것을 강조한다. '핵심 정보만 골라 읽으며 요약'하는 것은 실전 풀이의 효율성에 치중한 방식이므로 방법론의 취지와 어긋난다. ② 지문은 대략적인 판단이나 직관이 아닌, 지문 내에서 '명확한 근거'를 규명하는 입체적 분석을 요구한다. ④ 해설지의 설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지문에서 경계하는 학습 태도다. 스스로 지문을 해

체하고 직접 근거를 찾아내는 '자기 주도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⑤ 선지의 근거를 하나하나 다는게 어케 지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데 사용됩니까. 범주 오류!

3. 정답 ⑤

논리적 범주 오류 및 개념의 형용모순이다. 우선 '인지적 경제성'은 실전에서의 효율을 위한 원리일 뿐, 분석 단계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니다. 또한, <보기>에서 '바람직한 어려움'은 세부 정보를 생략하는 '효율적 스키마 형성'이 아니라, 오히려 인지 부하를 높여 정보를 재구성하는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 따라서 분석 단계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려움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서술은 개념의 정의와 지문의 논지를 모두 부정하는 진술이다.

[오답 풀이]

① 지문에서 언급한 '세부 정보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분석'은 <보기>의 '바람직한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체적 행위다. 이는 학습자가 지문을 완벽히 이해했다는 착각인 '유창성의 함정'을 방지하고, 실전에서의 실수를 교정하려는 지문의 논지와 부합한다. ② '스스로 과외하기'는 지문을 재구성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기>의 '생성 학습'의 정의와 일치한다.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설지 탐독보다 높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므로, 독해 밀도를 높인다는 지문의 서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③ 실전에서 효율성을 위해 핵심 정보 위주로 읽는 행위는 <보기>의 '인지적 경제성'의 발현이다. 지문은 이러한 효율적인 독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석 단계에서의 밀도 높은 독해 경험이 축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④ (모든 선지의 근거를 규명하는 훈련은 사고 과정을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실전에서 뇌가 '인지적 경제성'에 따라 거시적이고 빠른 판단(스키마 중심 판단)을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도약이나 오류를 방지하는 기초 체력이 된다.

[4~9]

출제 의도: 시중 사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출과의 연계성을 조금 더 살려서 만들었다.

4. 정답: ②

(가)는 통속 심리학의 유용성(성공적 vs 실패한 이론)을 논하고, (나)는 마음이 '사고의 언어(표상)'인지 '본능적 에너지(리비도)'인지에 대한 상반된 실재 방식을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핵심은 통속 심리학의 '범위'가 아니라 설명 틀로서의 유효성이며, (나)는 본능의 '범위'보다 마음의 실체와 작동 원리에 집중하였다. ③ (가)에서 대체 방안(신경 상태 공간)

은 처칠랜드만의 견해일 뿐 글 전체의 목적이 아니다. (나)의 자아 형성은 이론 설명을 위한 부차적 정보에 불과하다. ④ (가)의 데닛은 설정된 욕구가 실제 내면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나)는 포더와 프로이트의 견해가 서로 충돌하므로 일관된 입증으로 볼 수 없다. ⑤ (나)는 두 학자의 이론을 대조하여 보여줄 뿐, 포더의 입장에서 프로이트의 비논리성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서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5. 정답: ④

법칙으로서(연역) 확장은 안 되지만, 귀납적 예측으로서 확장은 가능하다.

[오답 풀이]

① 통속이 지향성을 전제한 것은 맞으나, 실재한다고 보므로(자기는 입증 못하지만) 입증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너무 복잡해서 알 수 없다고 하지도 않으니 적절하다. ② 데이비슨은 심리 사건과 두뇌(물리) 사건이 동일하다고 보면서도 둘을 연결하는 자연 법칙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마음에 대한 보편적 법칙이 성립하려면 심리적 유형과 물리적 유형 사이의 관계를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③ 지문 3문단 후반부에서 데닛과 데이비슨의 견해를 정리하며, 연구자가 주관적 기준(해석 틀)을 투영하기 때문에 욕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두 학자 모두 욕구를 해석의 결과물로 본다. ⑤ 처칠랜드는 통속 심리학이 과거의 성공 경험만을 근거로 삼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다른 통속 이론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 통속 심리학 역시 실패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며 상대의 귀납적 판단 오류를 지적한다.

6. 정답 : ③

프로이트는 물리적 영역(신체적 요구)과 정신적 영역(㉠) 사이를 '본능'이 연결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은 신체적 요구 그 자체가 아니라 처칠랜드가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구체적인 '신경 과학적 모델'이다. 프로이트의 본능 개념을 처칠랜드의 고유 이론인 ㉠에 그대로 적용하여 둘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뇌의 물리적 수치와 좌표로 구성된 실재적 요소이다. 따라서 ㉠이라는 정신 모델이 물리적으로 환원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물리적 분석 대상이 된다. ② 처칠랜드는 ㉠을 통해 기존의 마음 개념(㉡)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했다. 따라서 ㉠의 분석은 ㉡을 실재하는 물리 현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관념적 대상(통속 심리학적 개념)'으로 분류하는 계기가 된다. ④ 프로이트는 정신(㉢)의 동력이 비합리적이고 본능적인 에너지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신을 물리적 수치와 법칙으로 분석하는 ㉠과 같은 방식은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볼 때 정신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부적합한 해석 도구이다. ⑤ 처칠랜드는 ㉠의 패턴을 분석하면 마음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신경증 등)에 대한 프로이트의 진단이 옳다면, 처칠랜

드의 이론에 따라 ㉠의 궤적을 분석하여 신경증이 발생할 물리적 상태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표상되었다고 하였다.

7. 정답: ⑤

ㄱ. 적절: 처칠랜드는 통속 심리학(욕구, 믿음)을 실패한 이론으로 규정하고, 마음은 오직 물리적인 '신경 상태 공간'으로만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미시경제 연구에서 설정하는 '욕구'라는 개념은 실제 물리적 내면(신경 상태)과 항상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ㄴ. 적절: 포더는 과학적 엄밀성을 위해 설정된 욕구와 내면의 실체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연구자가 예측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곧 설정한 욕구가 내면과 일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연구에서 ㉢를 수용할 수 있다.

ㄷ. 적절: 프로이트는 정신의 근본 동력을 비합리적인 본능적 에너지(리비도)로 파악한다. 연구자가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해 설정한 '욕구'는 본능적 에너지의 변형이나 억압의 결과물일 뿐이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욕구가 내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보다, 그 이면의 에너지 역동을 파악하는 것이 본질적이므로 ㉣의 수용 여부는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게 된다.

8. 정답: ③

지문 (나)의 결론에서 비합리적 본능은 '사고의 언어'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갑은 통제를 벗어난 비합리적 욕구까지 합리성의 규정 안에 포함하려 하지만, 포더에게 이러한 욕구는 사고의 언어라는 논리적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포더가 갑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라는 추론은 명백한 오류다.

[오답 풀이]

① 적절: 통속 심리학은 합리성을 이론의 출발점이자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합리성의 정의를 분석적으로 따지는 을의 비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존의 직관적인 합리성 틀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② 처칠랜드는 지향성 이론을 '실패한 이론'으로 보지만, 물리적 패턴(신경 상태 공간)을 통한 '현상의 예측' 기능은 인정한다. 갑의 분석이 결과적으로 예측에 기여한다면, 이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분석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수용할 여지가 있다. ④ 데닛은 유용하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면 대상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는 '지향적 태도'가 정당하다고 본다.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통해 합리성을 규정하려는 갑의 방식이 실질적인 예측력을 갖는다면 데닛은 이에 동참할 것이다. ⑤ 데이비슨은 일관성 있는 해석을 위해 대상에 지향성과 합리성을 투영하는 '해석의 틀'을 강조한다.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기저의 욕구를 바탕으로 합리성을 규정하려는 갑의 태도는 데이비슨이 말하는 해석의 정당성 확보와 일맥상통한다.

9. 정답: ⑤

[10~13]

출제 의도: 재진술과 함께 최근 평가원의 낚시 포인트를 선지에 대거 구현시켜 분명 쉽지만 잘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10. 정답: ③

3문단에 따르면 편승이론은 단기적 성과를 챙기는 이론이다. 단기적 성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편승이론은 약소국 입장에서 편승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국가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세력균형론에서 제시하는 약소국의 선택지 중에는 동맹체결이 존재한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위협균형론은 국가들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전략을 선택한다. 균형 전략에는 내적 균형 전략이 있으므로, 자국의 역량 강화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이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동맹이론은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여러 가지 보상을 얻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거나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력균형론과 편승이론은 모두 동맹이론이므로, 그러한 속성을 상속받을 것이다.

11. 정답: ③

3문단에 따르면 편승이론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편에 서서 생존보장이나 이익 확보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2문단에 따르면 세력균형론은 약소국이 자국 역량을 강화하는 내적 균형 전략이나 동맹 및 협력을 통한 외적 균형 전략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오답 풀이]

① 이 선지의 진술은 동맹이론의 일반적인 논의영역에 해당한다. 때문에 편승이론과 ‘달리’라고 말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선지의 진술은 세력균형론의 한계점이라는 맥락과도 맞지 않는 선지이다. 즉, ㉠이 아니라는 것이다. ② 원치 않는 내적균형 전략의 선택은 이중 버림 위험과 무관하다. 2문단에 따르면 내적균형 전략은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여 강대국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이중 버림 위험은 강대국이 비용 부담이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로 인해 동맹국을 버리는 현상이다. 이 경우에 항상 원치 않는 내적균형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 내적균형 전략을 선택한 것이 항상 이중 버림 위험에 따른 것도 아니므로, 일반성을 갖는 진술로 이중 버림 위험을 “원치 않는 내적균형 전략을 취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서술할 수 없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세력균형론과 편승이론은 위협균형론에 의해 단점이 보완되었다. 즉,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어 대체된 것이므로, 그 이론들 각각이 수정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 없다. ⑤ 장기적 생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은 이론은 편승이론이다. 세력균형론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다.

12. 정답: ②

<보기>에 따르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미국 등의 다른 강대국과 협력해 소련의 힘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 부분의 주어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며, 협력의 시도는 그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선택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세력균형론은 국제관계에서 특정 국가가 압도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기>의 NATO 결성은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서유럽권까지 압도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 및 미국이 동맹을 맺은 것이다. (북대서양이라는 이름에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편승이론은 약소국이 패권국에 편승하여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보기>에 따르면 소련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통해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입을 유도했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에 따라 단기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위협균형론은 균형 전략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강대국의 압박에 다른 국가와의 동맹(NATO)에 참여하려 했다는 점에서 위협균형론은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끌려감 보복 현상은 강대국의 편에 섰으나 이 때문에 ‘역으로’ 원치 않는 보복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다. <보기>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편에 서지 않았고, NATO 가입 역시 자발적으로 요청하였다. 이 때문에 <보기>의 사례는 편승한 사례도 아니고, 끌려감 보복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13. 정답: ④

지문의 ‘맺다’는 여러 대상들이 참여하는 행위이다. 이 선지의 부분의 인연 역시 두 명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다.

[14~17]

출제 의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끈질기게 붙잡는 문제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14. 정답: ②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반대로, 소성변형 혹은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하는 힘의 범위를 묻는 것이라면 단정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후크의 법칙을 응력이 변형률과 탄성계수에 비례하는 원리로 정의했다. 따라서 두 수치 사이의 비례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지문에 부합한다. ③ 5문단의 코멧호 사례에서 설계 목적이 ‘탄성 변형의 영역에서 운용’되는 것이었다고 명시했다. 이는 비행기 부품이 영구적인 변형 없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됨을 의미한다. ④ 4문단에서 연성 파괴의 과정을 설명하며 유효 단면적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언급했다. 지문 내에서 단면적의 급격한 감소를 파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균열

전파 속도가 빠른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은 지문의 맥락상 적절하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회복 현상은 소성변형 이후 원자들 간의 결합에 탄성 복원력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만약 금속이 특정 변형률에서 무조건 파괴된다면(즉, 소성변형 구간을 거치지 못한다면), 복원력이 작용할 물리적 여지가 없으므로 표면이 튀어나오는 현상도 일어날 수 없다.

15. 정답: ②

지문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메커니즘을 "탄성 회복을 거치며"라고 규정했다. 즉, 에너지는 가만히 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품이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는 **'물리적 변형 과정'**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따라서 계속해서 힘을 가해 이러한 복원적 변형(탄성 회복)이 일어날 틈을 주지 않는다면, 에너지는 방출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파괴에 사용된다.

[오답 풀이]

① 지문 2문단에 따르면 소성변형 구간에서도 원자 결합의 탄성 복원력에 의한 회복 현상은 발생한다. 즉, 힘이 강하다고 해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힘을 '제거하지 않아서' 에너지가 방출될 기회가 없는 것이 핵심이다. ③ 오답: 탄성 회복은 하중이 제거된 후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지문은 힘을 '계속해서' 가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회복이 일어나는 도중에 추가 하중이 실린다는 설명은 상황 설정 자체가 지문과 맞지 않는다. ④ 오답: 탄성 회복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지, 에너지를 상쇄하는 '반대 방향의 힘'이 아니다.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상쇄되어 사라진다는 진술은 지문에 근거가 없는 추측이다. ⑤ 파괴된 후에 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파괴의 '결과'에 가깝다. 질문은 파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왜 에너지가 하나도 방출되지 않고 모두 쓰이는지 그 원인을 묻고 있다.

16. 정답: ③

①과 ②를 동일한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문단에서 금속은 '동질적인 물체'로 가정된다. ①(네킹)은 연성 파괴 과정에서 에너지가 쏠려 특정 지점이 사후적으로 약해지는 현상이지만, 미리 존재하던 '결합의 위치'를 찾아내어 예측하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②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결합의 형상'이 원인이다. 따라서 두 현상 모두를 '결합의 위치'로 예측할 수 있다는 진술은 지문의 논리에 어긋난다.

[오답 풀이]

① ①(네킹)은 에너지가 부품 전체에 분산되지 못하고 특정 '약한 지점'에 집중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소성변형된 부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위치에 새롭게 힘을 가해 그곳을 약한 지점으로 만든다면, 그 부위에서 네킹이 일어날 수 있다. ② ②는 부품의 표면이나 내부에 있는 '결합'의 형상이 길고 뽀족할 때 발생한다. 부품에 결합 자체가 많다면 ②와 같은 특수한 형상의 결합이 존재할 확률이 물리적으로 높아지므로 ②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④ 4문단에서 파괴 양상은 부품의 '구성 물질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비록 ⑥가 예외적으로 소성변형 물질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파괴의 성격(연성/취성)은 재료의 물성에 의해 결정된다. ⑤ 1문단에서 응력을 거시적인 '단위 면적당 하중'으로 정의했다. 공학 설계 시 부품이 파괴되거나 변형되는 임계 지점은 이러한 거시적 응력 계산값을 통해 파악한다. 비록 실제 파괴는 미시적 결합에서 시작될지라도,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은 거시적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정답: ④

지문 5문단에 따르면 축 응력과 원주 응력은 '기내 압력' 때문에 발생한다. 창문이 파괴되어 기체가 터져 나가면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압력에 의해 발생하던 축 응력은 감소(해소)하게 된다. 반면, 비행기의 균형을 잡으려는 꼬리날개의 하중은 기내 압력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므로 사라지지 않고 동체 분리를 일으킨다. 즉, '축 응력은 감소하지만 꼬리날개의 하중은 그렇지 않다'는 추론은 매우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지문 1문단에서 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하며 변형을 일으킨다고 했다. 축 응력 역시 동체의 양 끝을 당기는 힘이므로, 동체가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변형'을 반드시 일으킨다. ② <보기>에서 응력은 구멍(창문)을 우회하다가 '뽀족한 부분'에 집중된다고 했다. 원형 창문은 사각형 창문에 비해 뽀족한 모서리가 없으므로 응력 집중이 덜하다. 또한, 이미 파괴가 일어난 상태라면 구조 자체가 변했으므로 응력이 '계속 정체'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③ 지문 5문단 끝에서 동체의 붕괴와 분리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꼬리날개가 동체에 가하는 하중'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축 응력을 이후 파괴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지문의 설명과 배치된다. ⑤ 동체가 길이 방향으로 늘어난 것은 축 응력이 작용했기 때문이지, 원주 응력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압력 용기에서 원주 응력은 축 응력보다 두 배 정도 강하며, 지문에서도 두 응력의 세기를 비교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8~21] (2023 7모)

선정 의도: 여러분들은 인정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7모 출제 기관이 문제를 맞돌이로 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출에 나왔었던 시간대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 너무 섹시하지 않은가?

18. 정답: ①

황제가 죽자 왕 부인 모자는 망극하다고 했으므로 왕 부인은 아들 조공과 함께 황제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을 뿐, 태자를 산으로 피신시킨 것은 아니다. 황제의 죽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산중으로 피란했다는 진술은 있지만 태자와 관련하여 왕 부인이 행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사월 사 일에 황제의 장례를 치를 때 '관원들이 엄히 예의를 갖추어' 황제를 서릉에 안장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황제는 조공에 대해 '인재가 거룩하고 충효가 거룩하매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언급하며 조공을 태자의 서동으로 삼아 조정에 등용하려 한다. ④

조웅은 대원수가 되어 이두병을 붙잡은 뒤,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린 것과 자신을 잡으려고 장졸을 보내 시절을 요란케 한 것에 대해 심문하고 있다. ㉔ 이두병은 태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들어 태자의 즉위가 매우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하며 태자의 즉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 정답: ㉔

㉔의 황제의 죽음 이후, 비어 있는 제위를 이을 자에 대한 논의가 ㉔에 신하들이 이두병을 황제로 추대하며 마무리된다.

㉑ 황제가 우연히 병을 얻어 병세가 열흘 동안 깊어지지만 이러한 황제의 신상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무엇인지는 ㉑에 드러나지 않는다. ㉒ ㉑에 신하들은 이두병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 신하들끼리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㉓ ㉑에, 이두병의 반대로 조웅을 서동으로 등용하지 못하고, 조웅 아닌 다른 이의 등용도 윤택하지 않아 서동을 뽑으려던 황제의 뜻은 보류되었다. ㉔에는 서동을 뽑는 일과 관련하여 신하들이 의논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㉕ ㉑ 동안 백성들은 황제의 건강을 걱정하며 회복을 기원했지만 결국 황제는 ㉔에 죽게 되어 그들의 소망은 좌절된다.

20. 정답: ㉓

[A]는 태자의 나이가 어려 제위를 전하기 어렵다는 현재의 상황을 명분으로 들어 이두병과 협정을 하라는 황제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상대에게 전하고 있다. [B]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해명하며 상대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보전해 달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㉑ [A]에는 물음의 방식이 드러나지만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㉒ [A]와 [B] 모두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㉔ [A]와 [B] 모두 상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㉕ [A]와 [B]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지 않다.

21. 정답: ㉔

<보기>에 따르면 ‘복수’란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이두병과 이관을 붙잡고 조웅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웅의 원한을 대신 해결했다고도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㉑ 승상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황제에게 조웅을 천거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하들을 위협하는 이두병의 모습은 조웅의 조정 진출을 막아 시련을 가하는 악인의 모습에 해당한다. ㉒ 이두병은 황제의 죽음 이후 어린 태자를 대신해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역모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것에 해당한다. ㉓ 대원수가 되어 팔십만 대병을 이끌고 황성에 찾아온 조웅을 보며 모두 길에 나와 고마워하며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

습은 조웅이 이두병을 벌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뜻을 드러내는 모습에 해당한다. ㉕ 이두병을 심문하면서 태자에게 행한 일을 꾸짖으며 그를 벌하려는 조웅의 행위는 왕권 찬탈을 통해 부당하게 천자 행세를 한 그의 행위를 심판하여 대의명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것에 해당한다.

[22~26] (2024 7모)

선정 의도: 여러분들은 인정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7모 출제 기관이 문제를 맞돌이로 낸다.

22. 정답: ㉓

(나)는 ‘천 층 파도 한가운데 백 척 장대에 올랐더니’, ‘억만 길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네’에서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가)는 <제3장>에서 ‘세우’, <제6장>에서 ‘설월’, ‘매화’라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삶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㉕ (가)는 역사적 인물을 호명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나)는 ‘공자’라는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23. 정답: ㉒

[B]의 ‘뜰 가’에 ‘제비 비비’하는 모습을 보며 ‘한숨 겨워하’는 것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㉑ [A]의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 난 후 부근이 그다지도 날릴시고’에서 ‘부근’이 ‘많던 솔’을 사라지게 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부근’에 의해 사라진 ‘솔’을 ‘우로’가 ‘깊으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므로, ‘우로’에 대한 실망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㉓ [C]의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에서 추운 ‘설월’의 상황에도 향기를 풍기는 ‘매화’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시선이 드러난다. 그러나 매화의 향기를 알지 못하는 ‘호접’에 대한 예찬은 드러나지 않는다. ㉔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난 후’의 상황은 ‘남산에 많던 솔’이 사라진 상황으로, [B]의 끝이 없는 ‘적객의 회포’와 연결되어 한탄의 정서가 드러나지만,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㉕ [B]에서 ‘창밖’의 ‘세우’를 보는 상황과 [C]의 ‘창’을 열어 매화의 ‘향기’를 맡는 상황에는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24. 정답: ㉔

㉔은 ‘지하 복풍’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화자의 운명과 그에 대한 마음을 물음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절망에서 벗어나겠다는 화자의 결심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㉑ ㉑은 화자가 추구하는 ‘효제충신’이라는 삶의 가치를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② ㉠은 ‘초췌한 이 얼굴’에서 수척해진 화자의 모습을, ‘입 그려 이러한가’에서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상황을 물음의 형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입을 향한 그리움에 수척해진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물음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은 입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 소매’를 눈물로 적시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입과 재회하지 못해 비통해하는 화자의 심정을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⑤ ㉢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물의 근원’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시각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생각을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25. 정답: ①

1문단의 ‘사람들이 다 반총 · 동백 · 곤륜 · 민산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달하기 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다.’라는 부분을 통해, 강 · 회 · 하 · 한의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1문단의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물의 성질은 확인할 수 있지만, 물이 근원에 도달하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2문단의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줄달아 잇닿다가 장강에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는 호호하고 쾌연히 넓고 넓어 왈각 닥치어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를 통해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의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물이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세간의 통념을 바로잡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제시된 하동에서 ‘작은 샘’과 관련하여 겪은 경험은 사람이 쓰이는 이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이 쓰이는 이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5문단에서 ‘물을 보는 데는 방술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라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 하였으나, 이를 통해 물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6. 정답: ③

(나)에서 ‘달’을 보고 ‘예전에 보던 낫빛인 듯’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그리운 임의 모습을 ‘달’에 빗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화자가 입을 위해 ‘백옥 같은’ ‘마음’을 지켰다는 것은 자신의 결백함을 표현한 것이고, ‘무서리가 ‘섞어 치고’ ‘억만 길 못에 빠’졌다는 것은 유배된 화자의 경험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유배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관리들의 사회인 ‘환해’에 ‘뜻밖의 회오리바람’이 내린 것은 화자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겪게 된 부정적인 현실을 자연물

의 속성과 연관 지어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냉정’과 수맥이 같은 ‘작은 샘’을 자신의 ‘이웃’들이 ‘더럽게 여’기고 ‘먹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 부분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고 연결 지었으므로, 이를 통해 자연물과 관련된 경 험과 인간사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윗사람’이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의 곡직에는 근본하지 않으니, 또한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라고 진술한 부분에서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30] (2017학년도 리트)

선정 의도: 솔직히 더럽게 어렵다. 평가원 소설 최고 난이도와 맞먹는다. 그러나 이 국어 현대 소설이라는게 오르비 고트 심찬우 선생님이 말한 것과 같이 내면 심리를 잡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한 번 내면 심리 파악의 끝판왕 문제를 가져와 봤다. 틀려도 울지 마라. 그리고 이런 건 좀 스킵하며 풀 줄도 알아야한다.

27. 정답: ③

작중 상황 안에서 ‘지연’이 명식을 목격하였고 [B]에서는 서술자가 상황을 전달하고 있기에 양자가 서로 다르다.

[오답 풀이]

① 제 3자가 서술하는 것으로 혹시나 명식이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었다면 ‘명식은...’이라는 언급은 자연스럽지 않다. ② 인물의 독백적 발화도 아니고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는 것도 아닌 명식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④ 지연이 명식을 목격함으로써 느끼는 바를 전달함으로써 상상력을 불러넣고 있는 것이다.

28. 정답: ③

지연은 명식이 만취가 되거나 변고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불길한 걱정 속에서 2층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런 예상과도 다르게 너무 정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로 불길한 예상이 틀렸다고 봐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명식이 맨얼굴을 더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가면에 익숙해진 탓이지 가면을 지어내기 때문은 아니다. ② 이전에 있었던 별난 일이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연의 혼잣말이다.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음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고로 ㉠은 당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대낮의 햇빛은 타인의 시선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가면이란 타인의 시선을 견뎌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⑤ ㉡은 지연이 보아 온 명식에 대한 생각들이 명식의 발언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내용에서 명식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언급도 지연의 부정적 인식도 드러나지 않는다.

29. 정답: ①

2층 서재에서 명식은 진정한 휴식이라고 느끼는 가면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내려온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로를 씻고 돌아오는 명식을 지연이 만나게 됨으로써 지연이 명식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명식은 가면을 쓰고 휴식을 취한 다음 가면을 벗고 내려온다. ③ 2층에서 일상의 고단함을 탈피하고 내려오는 거지 내려옴으로써 탈피되지 않는다. ④ 지연이 내적 욕망과 행동의 괴리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괴리를 극복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다. ⑤ 지연이 부부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비판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명식이 걱정되어 올라간 것이다.

30. 정답: ①

지문에서 지연이 명식과 거리를 두고 앉은 이유는 '변장을 하고 있을 그의 얼굴(가면)을 만나 버리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보기>에서 변신(가면)은 참된 자아의 진실이 아니라 '가짜 해결의 속임수'이자 '상상적 희망'일 뿐이다. 따라서 지연이 두려워한 대상은 명식의 '참된 자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를 가리고 있는 '가면(가짜 해결책)'이다.

[오답 풀이]

② 명식의 밤 외출과 변신은 현실 세계와의 불화에서 오는 갈등을 보여준다. <보기>에서 변신 모티프가 인물이 겪는 '갈등의 크기'를 드러낸다고 했으므로, 외출이 잦아지는 것은 갈등이 그만큼 고조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면의 눈물이 속으로 흐른다는 명식의 말은, 가면 뒤에 숨어서만 겨우 숨을 쉬며 살아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드러낸다. 이는 <보기>의 관점에서 볼 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참된 자아를 숨기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지연이 명식의 가면을 똑똑히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은 명식이 내세운 가짜 해결책에 동조하는 행위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상상적 희망'이라는 가면의 속성을 지연이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여 자기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명식이 가면을 쓴 자신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가면이 주는 일시적인 휴식과 해소 효과에 만족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보기>의 표현을 빌리면, 갈등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일시적 해소 효과(속임수)'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31~34] (2022 7모)

선정 의도: 솔직히 말하자면 시가 너무 좋아서 골랐다.

31. 정답: ①

(가)는 1연과 8연의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라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3연의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랴',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라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생명력이 움트는 봄과 누이를 잃은 화자의 상황이 대조적이라 할 수 있지만 (가)에서 대화체의 형식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에는 과거와 현재의 비교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에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32. 정답: ⑤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상관없이 생명력을 피우는 봄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화자의 슬픔을 나타낼 뿐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1연의 '누이여'와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다는 부분을 통해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살아 있음에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1연의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과 연결하여 보면 '기억의 얼음장'은 누이에 대한 기억임을 알 수 있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가 누이를 잃어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억의 얼음장'에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봄'이 되자 '접혔던 꽃술'이 '또다시' 피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3. 정답: ③

㉠은 '해바라기'가 피어 있고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우는 곳이므로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은 누이를 잃은 화자의 슬픔을 형상화한 공간이다. 뜨거운 '햇덩이'가 '이글거리는' 곳을 '맨발로 산보'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4. 정답: ③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문 안의 꿈속에서 본 모습일 뿐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은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라는 시행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마을'은 해바라기가 피고 낮닭이 깃을 치며 우는 삶의 공간이고 '바다'는 '꽃상여'가 도착하는 죽음의 공간이다. 따라서 마을에서 바다를 가기 위해 거치는 '산모퉁이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 소리 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와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를 통해 화자는 누이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봄은 그러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누이의 죽음인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하였으므로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